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0년 2월 2일(주일) 제1280호



동빙고 근린공원 조경조성 공사

2월 10일부터 ... 대중교통 이용 및 카풀 권장 교회주차장은 노약자 등 우선주차증 소지자 이용

2월 10일(월)부터 동빙고 근린공원 조경조성 공사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동빙고 근린공원 주차장을 2월 9일(주일)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동빙고 근린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은 2월 9

일(주일)까지 모두 이동시켜야 한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뒤편에 위치한 분리수거장도 2월 29일(토)부터 사용이 제한된다. 동빙고 근린공원 조경조성 공사가 실시되면 100대 분량의 주차

공간이 줄어드는 만큼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성숙한 배려가 필요하다. 교회 주차장은 노약자 등 우선주차증 소지자에게 양보하고, 카풀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에 와야 한다. 서빙

고 온누리교회는 장애인(국가발급 장애인증 소지자 - 목회행정실에 사본 제출), 노약자(70세 이상), 영유아 동반 차량(만 6세 미만 2명 이상), 임산부에게 우선주차증을 발급하고 있다.

선교재단 관계자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동빙고 근린공원에 임시 주차공간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그럼에도 주차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이나 공동체별 카풀을 적극 권장한다”고 제안했다.

동빙고 근린공원 조경조성 공사는 올해 6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동빙고 근린공원 조경조성 공사가 완료된 이후 청소년 수련시설(체육관, 국공립 어린이집, 청소년 시설, 지하주차장 등) 건립공사가 이어진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순예배 영상콘텐츠 시청안내

요한복음 9:1~12(2월 5일 본문)

본문 주제: 치유(하나님은 누이 질병과 연약함을 통해 놀라운 일을 나타내십니다)

영상제목: 고난의 신비-이한영 교수

내용: 고난을 아파만 한다면 우리는 절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이미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그리스

도의 고난으로 조명하며 동참한다면 고난이 공감으로 성화되는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적용질문: 나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들어난 경험이 있는지요?

<https://youtu.be/hF-bHU1sXzQ>

▶ QR코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배지침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라 성도들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안내합니다.

- 1)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을 방문하신 분이나 호흡기 증상과 발열이 있는 분들은 예배당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CGNTV와 유튜브를 활용해 주십시오.
- 2) 예배시 원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예배당 입장 전에 손소독을 실시하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교회 내에서 인사는 악수가 아닌 목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5) 예방을 위해 당분간 성찬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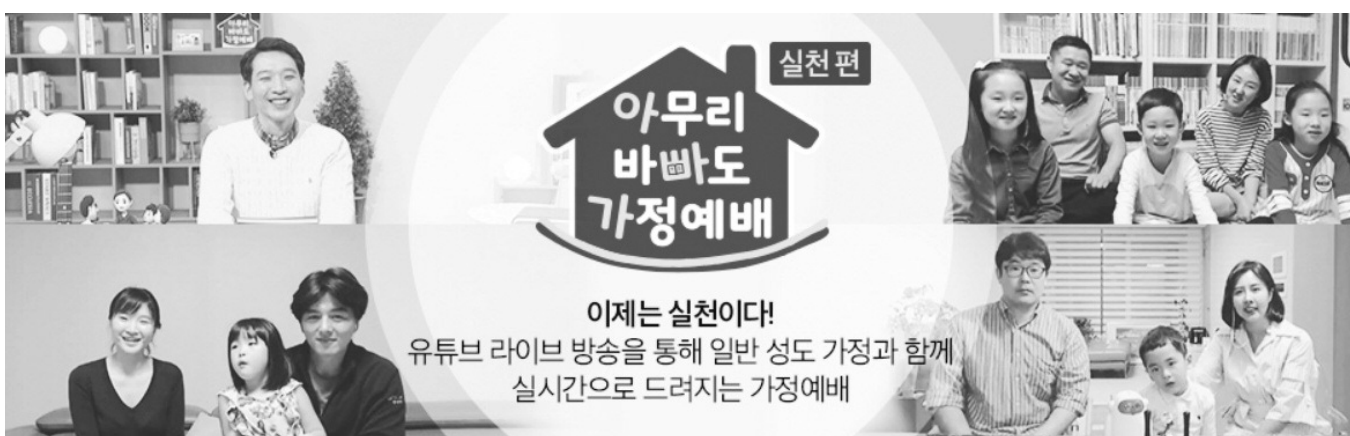
3. 신앙전수

예수 믿는 부모의 가장 큰 사명 ‘신앙전수’

최적의 신앙전수 방법 부모와 자녀가 함께 가정예배

온누리교회가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2020년 새해를 힘차게 출발했다. 본지에서는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에게 제안하고자 한다. 그 세 번째 방법은 예수 믿는 부모의 가장 큰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다음세대 신앙전수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가정예배 회복을 돕는 CGNTV 프로그램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다윗, 솔로몬, 사무엘 선지자.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 자녀교육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솔로몬은 지혜가 충만했고, 사무엘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로 추앙받았지만 모두 자녀교육은 실패했다. 자녀교육은 믿음의 조상들에게조차 쉽지 않았던 일이다.

예수 믿는 부모들은 자녀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최적의 방법이 무엇일까? 바로 신앙전수다. 성경은 다음세대에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않았을 때와 제대로 되었을 때의 결과를 아주 극명하게 기록하고 있다.

성경에 기록된 신앙전수 실패 및 성공사례

성경에는 다음세대 신앙전수의 성공과 실패 사례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신앙전수의 대표적인 실패사례는 여호수아 이후 세대다. 모세는 출애굽 하고 비록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신앙전수에는 성공했다. 그러나 모세에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그러지 못했다. 가나안 정복을 이룬 여호수아 세대는 믿음을 지켰지만, 그 이후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삿 2:7~10).

슬프고 애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여호수아

가 이끌었던 세대는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들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3대를 가지 못하고 소멸되고 말았다. 그토록 많은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들은 모두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실패했다. 신앙전수의 실패는 혹독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와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삿 2:14~15).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의 사례도 신앙전수의 대표적 실패사례다. 엘리는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지나치게 방임했다. 결국 이들은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았고(삼상 2:12), 여호와와 제사를 업신여겼으며(삼상 2:17), 심지어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죄를 저질렀다(삼상 2:22).

엘리는 자식을 잘못 기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다. 홉니와 비느하스 때문에 여호와와 법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겼고, 이 전쟁으로 두 아들을 잃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충격에 의자에서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만다.

디모데는 신앙전수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자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였다. 사도 바울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평가했을 정도로 디모데의 믿

음이 남달랐던 가장 큰 이유는 외조모와 어머니,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어진 신앙전수에 있다. 이는 사도 바울의 유언 같은 편지 디모데 후서에 잘 나타나있다.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딤후 1:5).

디모데는 가정환경이 썩 좋은 편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럼에도 깨끗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데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과 교육이 절대적인 역할을 했음을 사도 바울이 인정한 것이다.

디모데를 보면 답을 알 수 있다

로이스-유니게-디모데로 이어지는 3대 신앙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자녀교육은 믿음의 조상들도 쉽지 않았던 일이다. 쉽지 않은 다음세대 신앙전수 어떻게 해야 할까? 성공모델인 디모데를 보면 답을 알 수 있다.

첫째,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 로이스와 유니게는 디모데가 어려서부터(infancy: 0~2세의 영아기) 말씀을 가르쳤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딤후 3:15).

‘어려서부터’ 즉, 영아기 때부터 성경을 가르쳤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디모데 인생 최초의 배움이 성경말씀이었다. 어려서부

터 말씀을 듣고 자란 디모데는 훗날 사도 바울과 함께 세계 선교의 장을 여는 주인공으로 자리잡았다. 자녀들에게 성경말씀을 가르치는 게 최우선이다.

둘째, 부모와 자녀가 수시로 대화해야 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신 6:5~7).

여기서 ‘강론’이 영어 성경에서는 ‘talk about’으로 기록되어 있다. 서로 대화하는 것이다.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누워있든지, 앉아있든지, 서 있든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 자녀들과 끊임없이 대화하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신앙전수 최적의 방법이 무엇일까? 부모가 자녀와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모여 성경을 읽고, 묵상한 말씀을 나누고, 하루의 삶을 대화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전수의 최적의 방법이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함께 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많은 부모들이 교회에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맡겨버리곤 하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다. 일주일 168시간 중에서 주일학교 1시간만으로 어떻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전수할 수 있단 말인가? 신명기 6장 5~7절에 나오는 ‘너’는 ‘부모’를 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어린 시절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한다. 링컨에게 유일한 교사는 어머니였고, 유일한 교과서는 성경책이었다. 훗날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했다.

“이 낡은 성경책은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물려주신 것이다.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모두 이 성경책 덕분이다. 나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한다.”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다. 성경을 읽음으로써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성경이 명령한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대부분의 영화나 드라마는 좋은 결말로 끝을 맺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기록 보다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기록이 훨씬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여 회개케 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할 목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많은 이야기들이 그렇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힘을 부여받고,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결국 타락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질투와 미움으로 열락진 비참한 인생으로 마무리됩니다. 솔로몬도 하나님께 특별한 지혜를 받았지만, 우상숭배에 빠져서 왕국이 분열되고, 비참한 길로 들어서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아사 왕도 동일한 패러다임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사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뉜 분열왕국시대에 남유다 왕국의 세 번째 왕입니다. 역대기 전체에서 나타난 남유다의 개혁적인 왕의 첫 번째입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아 왕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라를 올바로 세우는 믿음의 개혁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그랬던 왕이 비참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습니다.

아사 왕의 할아버지는 르호보암이고, 아버지는 아비아임입니다. 르호보암과 아비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사 왕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악행을 보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행실을 했습니다. 그는 우상들을 근절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아사 왕, 우상숭배 근절하고 하나님만 찾고 의지하는 국가 만듦

“아사는 그 하나님 여호와와 눈앞에 선하고 올바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그 땅에서 이방 제단과 산당들을 없애고 돌기둥을 깨고 아세라 우상을 찍어 버렸습니다. 아사는 유다에게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지키게 했습니다. 아사는 유다의 모든 성들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 버렸고 그의 다스림 아래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대하 14:2~5).

아사 왕이 얼마나 철저하게 우상숭배를 근절했는지 자신의 할머니를 폐위시킵니다.

“아사 왕은 또한 자기 어머니 마야가를 대비 자리에서 몰러나게 했습니다. 그가 역겨운 아세라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사는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골짜기에서 태웠습니다”(대하 15:16).

한글성경을 보면 모친, 어머니로 번역을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할머니입니다. 마야가는 대비로서 르보호암 때부터 궁중에 자리를 잡고 권력을 누리며 우상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아사 왕이 우상숭배의 근원지를 찾아보니 왕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할머니 마야가를 폐위시키고 쫓아냅니다. 또한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서약을 하게 합니다.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또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당시 ‘구스(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스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의 군사는 100만, 병거가 300대였습니다. 이에 반해 남유다 왕국의 병력은 베냐민과 유다지파를 합해도 58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불가능한 전력이었습니다. 그때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전심을 다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힘없는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에게 대항할 때 도와줄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 큰 군대에 맞서 나왔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대하 14:11).

하나님은 아사 왕의 기도에도 응답하셨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아사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아사 왕의 리더십을 통해 남왕국 유다 전체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나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12절).

“온 유다는 그들이 마음을 다해 맹세한 것이 기뻝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았고 여호와께서도 백성들과 만나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 주변에 평안을 주셨습니다”(15절).

신명기 6장 4~5절 말씀처럼 “너는 네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는 삶이 가능하고, 그런 나라도 가능하다는 것을 아사 왕이 보여주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이 역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통치 36년 되는 해, 평안하던 나라에 문제가 발생하다

남유다는 평안했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민족이 되었을 때 35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6년째 되는 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열왕기와 연대적인 충돌이 있습니다. 아사 왕 통치 36년인지, 르보호암 때부터 36년인지는 이견이 좀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를 공격할 준비를 했습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살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었습니다.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왕국 유다를 동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세 차례 예루살렘에 모여 절기를 지켰습니다. 분열왕국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방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절기 때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가기를 원했고, 먼 거리지만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남왕국 유다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한반도 상황과 유사한 시대입니다. 남쪽에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번영이 있기에 북왕국 사람들이 탈북해서 남쪽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을 차단하기 위해 요새를 세웠습니다. 예루살렘에 오르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라마라는 지역에 요새를 짓고, 남쪽으로 사람들이 왕래하지 못하도록 차단했습니다. 군부대를 전진 배치해서 전쟁을 일으킬 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사 왕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주목하셨습니다.

아사 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더 북쪽에 있고, 힘이 있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뇌물을 보냈습니다. 여호와와의 성전과 자신의 왕궁 창고에 있는 은과 금을 보냈습니다. 뇌물의 조건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공격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치면 그들과 싸우기 위해 라마에 있는 병력을 철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격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은과 금을 뇌물로 보낸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국가의 중요한 안보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탁월한 외교력처럼 보이지만 이는 돈으로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하려는 지도자의 오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다른 시각으로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해결 자체보다 어떤 동기와 마음으로 했는지를 더욱 주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 지도자가 돈으로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것을 매우 심각하게 보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은 반드시 우상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아사 왕은 이 시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는가?”라는 질문에는 대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온 맘 다해 사랑하지 않은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은과 금을 이방 나라에 뇌물로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의지하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언제부터인지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아사 왕 믿음의 추락과 그 이유

첫째,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부터였을 것입니다. 불신앙은 큰 시련보다 작은 시련 앞에서 나타납니다. 아주 사소한 어려움,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앞에서 오히려 불신과 의심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이 나타납니다. 아사 왕이 직면한 문제는 당시 남왕국 유다에게는 엄청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거기서부터 아사 왕의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온 맘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문제까지도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온 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 성공이 계속되고 있을 때입니다. 믿음의 추락은 실패가 아니라 모든 일이 잘 되어가고 있을 때 많이 일어납니다. 지난 35년 동안 아사 왕은 많은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13면에 계속)

“2월 5일 수요일여성예배가 새로워집니다”

다양한 콘텐츠, 깊어지는 말씀, 유튜브 채널 오픈

2020년 2월 5일(수)부터 수요일여성예배가 리뉴얼 된다. 더 다양한 콘텐츠는 물론이고, 더 깊어지는 말씀, 나눔의 장 확장 등을 통해 여성들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 긍정적인 변화를 꿈꾼다. 조호영 목사(여성사역본부장)는 “평일에 온누리교회 여성들이 여성맞춤예배인 수요일여성예배에 더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호영 목사와의 일문일답.

/ 홍하영 hha0@onnuri.org



조호영 목사가 새로워지는 수요일여성예배를 소개했다.

올 한 해 수요일여성예배는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2020년 새해를 맞아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표어는 바로 예배의 회복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개인과 가족의 예배회복은 물론, 찬양과 말씀, 기도가 있는 공동체적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더욱 경험하게 되고 또 진심으로 우리의 사랑도 고백할 수 있는 진밀함이 회복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일이 아닌 평일 오전에 여성들만을 위한 맞춤예배, 수요일여성예배가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실제 수요일여성예배를 드리면서 엄청난 치유

와 회복,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암 투병 중이던 한 성도님은 여성 맞춤전도집회에 참석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수요일여성예배를 드리면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셨습니다. 또한 다른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도 온누리교회 수요일여성예배에 참석하셨다가 큰 은혜를 받고 본 교회에서 더 큰 섬김을 감당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요일여성예배가 온누리교회 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 교회 여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일예배만 참석하고 주중에는 교회에 발걸음을 하지 못하는 많은 여성들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 ‘더 깊은 말씀’, ‘은혜의 찬양과 간증’을 준비하려고 합니

다. 이것을 위해 여성사역 리더십들과 더불어 권사회 임원 리더십들이 모두 수요일여성예배 운영위원이 되어서 알찬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함께 중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월 첫 주는 특별여성예배로 이재훈 담임목사님을 모시고 모든 캠퍼스에 여성들을 위한 특별 메시지를 생중계 할 예정입니다.”

여성사역본부에서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교회의 방향에 맞춰 여성사역에서도 유튜브 채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위한 매일 기도’ 채널입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로 기도제목을 전달하고 나누던 마리아행진 123(하루에 2분씩 3번 기도하자)운동을 영상으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로 기도제목을 계속 공유하고 이와 더불어 영상으로 기도제목을 읽어주는 콘텐츠가 함께 제공됩니다. 운전 중이나 집안일 하느라 메시지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도 음성으로 언제 어디서나 기도제목을 공유하고 중보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채널입니다. 이것을 위해 특별히 옴피의 권사님(영화배우)께서 기도문낭독을 자원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마리아 톡톡’입니다. 마리아 톡톡은 이 시대의 평범한 여성들인 마리아들의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통해 회복된 이야기, 시험에서 실패하고 승리한 이야

기,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소중한 이야기들로 우리 여성들의 삶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유익한 콘텐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시대 모든 여성들이 ‘나를 위한 매일 기도’와 ‘마리아 톡톡’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고, 말씀을 삶의 최우선에 두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 교회 대부분이 남성 성도보다 여성 성도들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성들과 여성예배의 회복이 정말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성이 회복될 때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한 여성이 변화하면 세상이 변화합니다!”입니다. 성도의 변화는 예배와 말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2020년 새롭게 변화되는 수요일여성예배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유튜브 채널 ‘나를 위한 매일 기도’, ‘마리아 톡톡’을 구독하면서 모든 여성들이 온전한 치유와 회복,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올해는 온누리교회 모든 여성들이 예배와 말씀, 기도를 더 가까이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능력으로 가정과 교회, 나라를 회복시키는 여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 2월 5일(수)은 전 캠퍼스가 특별여성예배로 드립니다.(감사: 이재훈 담임목사)

* 자세한 문의사항은 각 캠퍼스 여성예배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수요일여성예배 간증

기쁨의 눈물 흘리는 장소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15년 다닌 직장에 사표를 냈더니 마음에 공허함이 너무 컸다. 그러던 중에 지인으로 부터 “온누리교회 수요일여성예배에 함께 가자”라는 제안을 받았다. 시간도 평일 오전이어서 “그래! 한번 가보지 뭐”라는 마음으로 발걸음 세상에 교회로 옮기게 되었다.

처음 참석한 온누리교회 수요일여성예배에서 목사님께서 ‘믿음의 유산’에 대해 말씀하셨다. 설교를 듣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남들의 잣대에 나를 끼워 맞추고 종횡무진 살아야만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내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다. 말씀을 의지하

며 사는 것이 답답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 그늘 안에 머무는 삶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음에 감사하다.

나에게 수요일여성예배는 여성으로서의 건강한 정체성을 세우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소중한 축복의 통로다. 또한 나를 아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장소다.

새해에는 나와 같은 많은 여성들이 수요일여성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기를 소망한다.

/ 김정현 성도(용산공동체)

배우고, 변화되고, 치유되는 장(場)

나는 다른 교회를 다니지만 온누리교회 수요일여성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감격이 무엇인지를 경험했다. 올해로 13년째 온누리교회 수요일여성예배를 드리고 있다. 온누리교회 수요일여성예배를 드리면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많은 아픔들이 치유되고 회복했다. 나를 괴롭히던 아픔들이 언제부터인가 찬양 앞에서 힘을 잃고,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되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무엇이든 새로 배우고, 익히며 자라는 것처럼 나의 성격, 표정, 습관, 사람을 대하는 마음 하나하나까지 변화되었다. 걸음마를 떼는 아기처럼 천천히 연습하

며 주님의 딸로 자라나는 귀한 시간이었다.

온누리교회 수요일여성예배에서 성도 사랑하기,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기, 권위에 순복하기, 다음세대들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꿈꾸게 하기 등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배웠다. 또한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힘, 보이지 않는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힘을 얻었다. 무엇보다 나를 깊이 만나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주님을 만났다. 온누리교회 수요일여성예배에 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 김형애 집사(동대문제일교회)

찬양으로 하나님 전하는 꿈!

세라핌합창단, 이웃과 함께하는 음악회

꾹꾹리 같은 아이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예쁜 단복을 입은 아이들이 울동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마치 숲속 작은 요정들 같았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노을빛과 맑고 청량한 아이들의 목소리, 그 모습을 바라보는 관객들의 미소가 어우러진 이곳은 동화에 나올법한 아름다운 세상 같았다. 지난달 양지 온누리교회 하용조 기념채플에서 열린 CGNTV 세라핌합창단(이하 세라핌합창단) 정기연주회 풍경이다.

/ 홍하영 hha0@onnuri.org

그리 춥지 않은 겨울 날씨 덕분에인지 양지 온누리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산길에는 울긋불긋한 단풍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 어서 오라는 산새소리들의 손짓을 받으며 도착한 양지 온누리교회 마당에는 미소를 한가득 머금은 아이들이 서 있었다. 세라핌합창단의 어머니들이다. 반갑게 인사하고 공연장인 하용조 기념채플로 향했다. 한 어머니와 함께 공연장으로 가면서 그동안 세라핌합창단이 이번 정기연주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연습하며 준비했는지,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무대에 설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번 정기연주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 세라핌합창단을 향한 어머니들의 무한한 애정과 칭찬이 얼마나 대단하던지 정기연주회를 보기도 전에 팬이 되고 말았다.

공연장에 모인 관객들의 표정을 보면서 그들도 나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관객들의 표정에 설렘이 잔뜩 묻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멋진 공연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 줄 수 없다는 것이 서운할 정도였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부터 관객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세라핌합창단의 정기연주회는 단순한 합창 공연이 아니다. 그 이상의 무언가가 숨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세라핌합창단의 정기연주회가 시작되고서야 그 이상의 무엇인가의 정체를 알 수 있었다. '이웃들과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그 이름만큼이나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이웃들과 동역자 그리고 세라핌합창단이 함께 수놓은 천사들의 합창이었다.

아주 특별하고 의미 있는 음악회

이번 세라핌합창단 정기연주회 주제는 '이웃과 함께하는 송년음악회'였다. 따라서 이번 정기연주회는 세라핌합창단의 실력을 뽐내는 자리가 결코 아니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진리를 찬양으로 보여준 세상 어디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아름다운 공연이었다.

세라핌합창단은 올해로 창단 18주년을 맞이했다. 18년 동안 교회 행사와 국내외 아웃리치, 합창경연대회, 정기연주회 등을 하면서 실력을 인정받아 왔다. 그런데 세라핌합창단은 실력을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더 큰 꿈이 있었다. 교회 밖 이웃들과 지역사회 이웃



세라핌합창단 단원들이 정기연주회에서 울동하며 찬양했다.

들에게 찬양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섬기는 것이다.

현재 세라핌합창단 지휘를 맡고 있는 최영은 성가사는 홍정표 장로(서울장신대 명예교수, 세라핌합창단 전 지휘자)의 뒤를 이어 2016년부터 세라핌합창단에 합류했다. 최영은 성가사가 이번 세라핌합창단 정기연주회에 특별게스트들을 초청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송년음악회를 준비한 이유도 찬양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섬기는 바로 그 꿈 때문이다.

"우리끼리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웃, 가족, 성도들 모두 함께 즐기는 정기연주회가 되기를 바랐거든요. 도움과 관심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우리가 선물이 되고 싶었고요. 이웃들에게 물질 뿐만 아니라 시간과 정성, 사랑을 나누는 일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세라핌합창단 아이들이 배우기를 바라면서 특별게스트를 초대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송년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세라핌합창단 정기연주회에서는 양지 온누리교회 주영광찬양사역팀과 포천어울림합창단이 특별게스트로 출연했다.

양지 온누리교회 주영광찬양사역팀은 양지 온누리교회 1부 예배를 섬기는 찬양사역팀이다. 세라핌합창단 최영은 성가사가 먼저 공연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양지 온누리교회 주영광찬양사역팀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세라핌합창단 정기연주회에 특별게스트로 참가하면 자연스럽게 홍보도 되고, 공연 경험도 쌓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마침 세라핌합창단 정기연주회

를 양지 온누리교회에서 하니 주영광찬양사역팀이 함께 무대에 섰으면 좋겠더라고요. 주영광찬양사역팀도 흔쾌히 허락해주셨어요."

포천어울림합창단은 포천시 다문화가정 어린이들로 구성된 합창단이다. 포천어울림합창단은 이번 세라핌합창단 정기연주회 시작부터 함께 했다. 최영은 성가사가 지역사회 이웃들을 돕는 것을 세라핌합창단의 목표로 설정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알아보면 중에 한 장로의 소개로 포천어울림합창단을 알게 됐다. 세라핌합창단은 포천어울림합창단과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었다. 세라핌합창단은 앞으로 포천어울림합창단의 멘토로 섬겨줄 것도 약속했다.

세라핌합창단 정기연주회 모든 공연 순서가 멋지고 좋았지만 세라핌합창단의 공연이 독보적이었다. 붉은색 예쁜 단복을 입고 울동하면서 찬양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귀엽던지 눈을 땔 수가 없었다. 관객들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고, 신이 나고, 아이들의 맑고 청량한 목소리에 빠져 드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너 나 할 것 없이 세라핌합창단의 공연에 매료된 게 분명했다. 세라핌합창단의 표정과 몸짓 하나하나를 바라보는 눈빛에 사랑이 묻어 있었다. 무대에서 노래하는 세라핌합창단의 표정에는 찬양하는 기쁨이 얼마나 크고 행복한지가 묻어 있었다. 찬송가 편곡, 세계 명곡, 특별게스트들의 공연 외에도 불거리가 또 하나 있었다. 세라핌합창단의 자랑인 핸드벨 찬양이었다. 세라핌합창단은 2016년부터 매년 수준 높은 핸드벨 찬양

연주를 선보이고 있다. 핸드벨 연주는 악보가 흔하지 않고, 아이들이 따라 하기에 난이도가 높아 무대에 올리기가 쉽지 않다. 최영은 성가사가 기존 곡들을 편곡해서 세라핌합창단 단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도하고 있다.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 편곡하고, 헌신적인 지도 덕분에인지 세라핌합창단의 핸드벨 연주 실력이 상당했다. 세라핌합창단원들의 손끝에서 맑은 음들이 울려 퍼질 때마다 온몸에 기분 좋은 소름이 돋았다.

이번 세라핌합창단 정기연주회는 단원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 4년째 세라핌합창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진석 학생(고1)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찾았다.

"4년 동안 세라핌합창단에서 활동하면서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되고, 재능을 발견하고, 작곡가라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음악들과 세상에 위로를 전하는 선한 곡들을 만들고 싶어요."

정해원 학생(중2)은 세라핌합창단에서 활동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됐다.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세라핌합창단 찬양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너도 나를 위해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지 않을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이후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게 됐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됐어요. 제가 세라핌합창단에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저희의 공연을 보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서도 찬양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요."

세라핌합창단의 꿈은 찬양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다. 세라핌합창단은 매년 국내외 아웃리치를 간다.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을 찾아가 찬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지난달 10일부터 17일까지는 태국 CGNTV와 협력하여 태국 방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돌아왔다. 올해부터는 섬김의 지경을 넓혀 지역사회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할 계획이다.

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모집대상: 초등 1학년~중등 3학년
시간: 매주 토요일, 주일 오후 2시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신관 카페
곡: 자유곡 한 곡 준비
문의: 010-5958-5583

선교를 위한 기도를 ON하라!

2000선교본부가 발행하는 〈ON편지〉 활용법

선교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물론 지금 당장 선교지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렵지만 열방의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 중보기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한 중보기도는 보내는 선교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교이다.

2000선교본부에서는 격월로 열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선교지 소식 등을 엮은 〈ON편지〉를 발행하고 있다. 2000선교본부가 제안하는 〈ON편지〉 활용법을 소개한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온누리교회 성도라면 단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구독해야 하는 책이 있다. 2000선교본부에서 격월로 발행하고 있는 〈ON편지〉다. 〈ON편지〉에는 선교지 소식과 선교사들의 기도제목 등이 수록되어 있다. 선교사와 선교지 상황을 성도들에게 알리고, 중보기도를 부탁하려는 용도로 제작된 책자다. 〈ON편지〉 한 권만 읽어도 온누리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과 일일이 연락을 주고받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따끈따끈한 선교지 소식을 알 수 있다. 누구든지 신청만 하면 격월로 발행되는 〈ON편지〉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ON편지〉는 2015년부터 발행했다. 매년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ON편지〉 35호부터는 활용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 일부개편을 했다. 대륙별 소책자 여섯 권을 한권으로 묶어 휴대성과 가독성을 높였다.

〈ON편지〉 활용법, 매일·꼭 짚어·여럿이

〈ON편지〉는 6개 권역(국내, 동아시아, 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라시아, 미주, 오세아니아)의 기도편지를 요일별로(월~토) 나눠서 제공하고 있다. 하루도 빼먹지 않고 읽는다면 6주 동안 매일 새로운 선교지 소식과 선교사들의 기도제목을 접할 수 있다. QT하는 것처럼 매일 특정시간을 정해놓고 〈ON편지〉를 읽고 기도하면 된다. 〈ON편지〉를 읽고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깊은 여운이 남는 지역이나

선교사가 생기기 마련이다. 바로 그곳을 하나 남게서 주신 선교지나 섬기라 명하신 선교사로 여기고 더 깊은 관심을 가지면 된다. 해당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에 참여해도 좋고, 아직 기도모임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직접 만들어보는 것도 방법이다. 〈ON편지〉 제작팀에서는 매주 화, 수, 목요일에 중보기도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 모임에 참여해도 좋다. 선교지와 선교사들의 소식을 더 깊이 알고 기도하면 더욱 풍성한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최미영 집사(남양주 온누리교회)는 매주 목요일 진행되는 〈ON편지〉중보기도모임을 섬기고 있다. 최 집사는 선교사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서 선교에 대한 마음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선교에 대한 비전은 늘 있었지만 선교와 선교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ON편지〉를 활용하고, 〈ON편지〉 목요중보기도모임에 참석하면서 선교와 선교지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과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도 경험하고 있고요. 선교사님들이 기도모임에 오셔서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중보기도 힘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고 간증 해주시거든요.”

〈ON편지〉의 감초 ‘선교지이야기’

〈ON편지〉에는 선교사들의 기도편지에 앞



〈ON편지〉에는 선교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있다.

서 ‘선교지이야기’ 코너를 제공하고 있다. 바로 이 코너가 〈ON편지〉의 감초다. 선교사들의 기도편지가 개인적인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라면, 선교지이야기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편지라고 할 수 있다. 선교지이야기에서는 특정 선교지나 선교테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지난 〈ON편지〉 36호에서는 인도네시아 람풍족 선교역사와 비전, 탈북민사역의 현재, 한인교회와 미국교회의 연합 필요성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선교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으면 좀처럼 접하기 힘든 정보들이다. 선교지이야기 제작을 담당하고 있는 오지훈 작가(관악금천공동체)는 성도들이 최대한 넓은 시야로 선교를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선교지이야기는 성도님들이 선교지를 보다 폭 넓게 이해해야 선교사님들의 기도편지가 더 와 닿을 수 있을 것 같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선교와 선교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가 더욱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좋은 〈ON편지〉를 아직도 모르는 성도들이 많은 것 같아 안타깝다. 온누리교회 전체 성도 수와 비교해보면 구독자가 너무 적다. 〈ON편지〉 제작팀에서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ON편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구독을 독려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박주덕 팀장(한강공동체)은 〈ON편지〉를 순모임에서 활용해볼 것을 적극 추천했다.

“선교사님들의 뜨거운 편지를 읽을 때마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그 소중한 편지가 전해지지 않는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아직 〈ON편지〉를 잘 모르시는 성도님들도 많고요. 저는 순모임에서 〈ON편지〉를 활용해서 나눔도 하고 중보기도도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적극 제안합니다.”

〈ON편지〉는 우편이나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목요선교예배에 참석해도 선교지 소식과 선교사들의 간증을 들을 수 있다.

문의: 02-3215-3212, 3250

선교지에서 온 편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5년 전 한국에서 온 단기 아웃리치팀을 데리고 A도시 거리에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자동차에서 전도하러 가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검은 재킷을 입고 가방을 사선으로 멘 청년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길을 따라 3분 정도를 내려갔더니 정말 도로 중간에 검은 재킷을 입고 가방을 사선으로 멘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고 잠시 대화를 나눈 다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때 기도해 준 청년을 그 뒤로는 보지 못했고 시간이 흘러 잊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 목요일 네덜란드 출신 선생님 한 분이 자기

가 아는 무슬림 청년이 있는데 그가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해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무슬림 청년에게 어떤 미국인 그리스도인이 와서 기도를 해 주고 갔는데, 예외상 기도를 받았지만 속으로는 경멸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한국인이 와서 자기를 위해 또 기도를 해줬는데 그때도 경멸을 했다고 했습니다. 얼마 뒤 그 무슬림 청년이 3층짜리 건물에서 떨어지는 큰 사고를 당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 무슬림 청년이 사고 당시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 준 것이 생각났고, 예수가 자기를 보호해 주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 무슬림 청년에게 기도를 해준 한국인이 바로 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시에

있는 그 무슬림 청년이 운영하던 책방을 찾아 갔고 5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라 서로의 기억 중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여러 정황상 그 청년이 제가 기도해준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청년에게 지난 4~5년은 폭풍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계속 방문하기로 했고, 그 청년과 성경을 같이 읽고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아랍어로 같이 읽어 나갈 생각입니다. 강력하고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5년 전 제가 길거리에서 그 청년을 위해 기도했을 당시 여러분에게도 그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얼굴도 모르는 그 청년을 위해 기도하신 여러분들의 기도를 5년이 지난 지금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뿌린 말씀의 씨앗은 결코 헛되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5년 전에 여러분들께 보낸 기도편지에 썼던 내용의 일부를 적어 보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뒤에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그에게 심었고, 우리의 기도가 효과가 있어 언젠가 열매를 맺을 것임을 믿습니다. 이 청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2014년 12월 30일 기도편지 중).”

/ 이이삭, 유리브가 선교사(중동E국)

그때 우리가 기도해준 그 청년...

전문가 기고

“설 연휴, 가정은 평안하셨습니까?”

부부의 건강한 의사소통이 갈등을 이긴다



김숙경 소장
(김숙경사랑연구소)

지난주는 민족의 대명절 설이었다. 명절은 오랜만에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 안부를 주고 받고, 화포를 푸는 날이다. 1년에 두 번 있는 명절을 즐겁고 유쾌하게 보낸 이들도 있고, 가족 간 갈등으로 스트레스가 쌓여 어려움을 겪은 가정들도 있을 것이다.

지금의 나에게 명절은 스트레스가 없고 편한 시간이다. 그러나 어린 시절 겪었던 명절은 힘들고 긴장되는 시간이었다. 부모님은 평소에도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고,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이었다. 그런데 명절이면 부부 간 불화가 더 심해졌고, 해결되지 않은 갈등으로 인해 부부싸움을 하시기 때문에 내게 명절은 기다려지는 날이 아니라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날이었다. 명절 때 겪는 부모님의 갈등 대부분은 친가와 관련된 일이었다. 지금 돌아해보면 평소 갈등을 적절하게 해결 못한 것이 명절에 친가문제가 더해지면서 극대화되었던 것 같다.

지금은 명절 때마다 음식을 간소화하고,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족들과 친지들을 만나고 있다. 나 또한 아이들에게 명절로 인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갈등과 스트레스 없애는 ‘건강한 소통’

명절이 지나면 부부갈등으로 인한 상담이 많아진다. 나는 그들에게 명절갈등을 다루기보다 평소 갈등을 잘 다룰 수 있도록 부부소통을 코칭한다. 명절에는 평소 해결되지 않았던 부부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상에서의 부부갈등을 건강하게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부부가 대화도 거의 없고,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회피만 하고 있다면 일상의 대화를 조금씩 늘려보자.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난하지 않기’다. 평범한 일상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한 부분은 부부의 부정적인 대화 가운데 이루어지는 비난이다. “당신이 잘못했잖아. 당신 때문이야”, “왜 그랬어?”라는 식으로 상대를 탓하거나 비난하는 말을 멈춰야 한다. 하고 싶은 말을 부드럽고 정중하게 요청하는 연습을 하자. 예를 들면, “당신 때문에 예배시간에 늦잖아. 왜 빨리 준비 못해?”라고 하기보다는 “나는 예배시간에 늦는 것이 너무 불편해. 조금만 빨리 준비하고 출발해서 늦지 않게 가면 좋겠어”라고 말하는 것이다. 평소 이렇게 대화하면 명절에 갈등상황이 별



“배우자에게 마음상태 알려서 감정을 해소하라!
비난보다 격려의 말, 원하는 바를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정중하게 요청하는 대화를
꾸준히 하다보면 갈등에 대처할 수 있다”

어저도 건강하게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다. “왜 당신 집을 먼저 가야 해? 왜 하루 자고 점심까지 먹고 와야 해?”라고 하기보다 “나는 명절에 우리 집에도 먼저 갔으면 좋겠고, 명절날 아침 먹고 바로 출발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해보자. 부부가 대화를 통해 조율해서 결정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분명하고 정직하게 말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추측하는 말, 이중메시지는 잘못된 소통이다. 상대의 태도와 말을 듣고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지도 않고 ‘상대가 이런 생각으로 말했을 것이다’ 혹은 ‘이런 태도는 나에게 대해 이런 마음이기 때문이야’라고 혼자 추측해서 오해하지 말자는 것이다.

“괜찮다, 나는 다 필요 없다”, “괜찮아요. 그렇게 다 할게요”는 이중메시지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입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해야 한다.

셋째, ‘무리하게 애쓰지 말라’는 것이다.

작년 명절에 고관절염으로 다리가 너무 아파서 시댁에 내려가는 게 무리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제가 다리가 아파서 장시간 차를 탈 수가 없어요. 이번 명절에는 못 갈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리고 쉬었다. 8시간 동안 꼬박 차에 앉아 갈 수 없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렸고, 시부모님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

잘하려고 애쓰기보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잘 분별해서 정중하게 소통하라고 말하고 싶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잘하려고

애를 쓰면 도리어 더 힘들어진다. 사람마다 해낼 수 있는 일의 분량과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한계가 다르다. 그것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분명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일할 것이 너무 많은 경우 해낼 수 있는 일의 분량이 얼마큼인지 알리는 것이다. 힘들고 불편한 마음으로 일을 힘겹게 해내는 것보다 할 수 있는 양만큼 일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명절을 보내는 것이 더 낫다. 나는 어머님과 요리하는 방식이 다르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정리와 설거지만 한다. 어머님께 솔직히 말씀드렸고, 어머님도 동의하셨기에 그렇게 하고 있다.

식사준비나 식사 후 정리할 때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함께 참여하는 문화를 만들어보는 것도 좋다. 나는 무거운 것을 들거나 식사 이후 정리할 때 남편한테 도와달라고 한다. 우리 시댁은 남자들이 거의 안 움직이는 문화였다. 그러나 시댁에 워낙 남자가 많고 여자들은 적다보니 이제는 자연스레 남자와 아이들이 뒷정리를 돕는다.

침이 필요할 때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거나 산책, 카페에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오자고 요청해도 좋다. 나는 매번 명절 때 남편과 근처 카페에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온다. 진짜 침이 되기에 명절 때 카페투어가 기대가 되기도 한다. 배우자의 필요를 물어보고 배우자가 쉽고 회복을 원하는 방식으로 명절 이후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다.

넷째,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요청하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떠나야 할 시간을 눈치 보

며 견디지 말고, 미리 언제쯤 갈 것인지 배우자를 통해 전달해도 좋다.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도움이 필요한 영역을 알리면 갈등이 최소화된다.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절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기보다 정확하게 요청하라. 나도 처음에는 2박3일, 3박4일을 지내다가 몸이 힘들어지면서 1박2일로 정했고, 차가 막히는 시간을 피해서 다니고 있다.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보다 가족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해서 다니고 있다.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했어, 애썼어”

명절은 모두가 수고한 날이다. 그렇기에 서로에 대한 감사함을 말로 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부모님께 명절에 수고하고 애쓰신 것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고 격려해 드려라. 평소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시고, 가족들을 돌보신 것에 대해 감사를 전하자. 배우자와 아이들에게도 격려의 말을 전해주라. 원하는 격려의 말을 요청하고, 격려를 충분히 누리라. 예를 들어 “여보, 나는 당신에게 듣고 싶은 격려의 말이 ‘명절에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했어, 애썼어’라는 말이에요”라고 요청하라. 배우자는 그 말을 그대로 반영해서 격려해주면 된다. 자신이 수고한 것에 대해 격려의 말을 들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기쁨이 생길 것이다.

자신도 격려해줘야 한다. “수고했어. 애썼어. 이 정도면 충분히 잘 한거야”라고 토닥토닥 해주자. 집으로 오는 길에 휴양림 같은 곳에서 쉬어도 좋고, 외출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누리거나 평소에도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것도 자신을 격려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배우자와 더 많은 대화를 하면서 마음이 갈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갈등을 최소화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다. 순간순간 배우자에게 마음상태를 알려서 감정을 해소하라. 배우자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당신 마음이 그랬구나”라는 말로 공감만 해줘도 된다. 특히 양가 부모님에게 배우자나 상대편 부모님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거나 비난하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라. 더 큰 갈등으로 증폭된다.

갈등이 더 심화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명절이 되어야 한다. 명절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평소 소통하고 배려하는 부부가 되길 바란다. 비난보다는 격려의 말을, 원하는 바를 애매모호한 표현이 아니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정중하게 요청하는 대화를 해보자. 평소 꾸준히 하다보면 명절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명절을 보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책 읽어주는 목사

교회 옆에 학교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학습법
박상진 저 | 두란노 | 10,000원

교회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회는 참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아이들이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도록 심방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동원해서 관심의 끈을 이어간다. 교회에 나온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교준비에 열정을 쏟는다. 공과공부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교사교육을 강조하고, 아이들에게

인격적이고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애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의 아쉬운 점은 기독교교육의 영역을 교회 현장으로만 한정하고 있다는 데 있다. 다행히도 요즘은 가정과의 연계가 기독교교육에 필요하다는 인식이 보편화하는 추세다.

달라스침례대학교의 헌터(Ron Hunter Jr.) 교수가 시작한 ‘D6’는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기초해서 ‘1:168’을 주장한다. 아이들이 한 주 168시간 대부분을 가정에서 보내기에 부모의 신앙적 영향력이 교회에서 보내는 주일 1시간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미국 애틀랜타 노스포인트교회의 ‘오렌지 컨퍼런스’는 빨강색(사랑)인 가정과 노랑색(빛)인 교회가 합해져 오렌지색이 될 때 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말레이시아의 ‘FFC’ (Family Friendly Church)는 티 제야쿠마 목사가 운영하는 가정 친화적인 교회로 말레이시아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국 교회 역시 가정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가정과 함께 신앙교육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하지만 기독교교육의 영역을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 바로 학업·학교와의 연계성이다. 기독교교육의 범주를 학교교육까지 포

함해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이 이 책의 전제다. 실제 자녀가 보내는 일주일 중 대부분의 시간은 가정이 아니라 학교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교회교육과 학교교육을 분리해서 생각한다. 신앙교육을 교회가 담당하고, 일반교육을 학교가 담당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학교까지 기독교교육의 영역으로 포함하지 않은 교회는 세속적인 교육의 패러다임에 갇힌 부모를 돕지 못한다. 부모가 자신의 욕망대로 자녀의 학업을 지도하도록 방치한다. 드라마 <SKY 캐슬>의 실상은 교회에서도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교회 부흥에만 골몰하다 보니 학교 현장에서 고통 받고 자살까지 생각하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제대로 두지 못했다고 저자가 깨달으면서 써 내려간 내용이 바로 이 책에 담겨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학습법 다섯 가지 원리를 제시하면서 학업을 돕는다. ‘여경지근(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의 원리’, ‘자기주도적 학습의 원리’, ‘꿈과 비전의 원리’, ‘집중의 원리’, ‘신뢰의 원리’를 성경 안에서 찾으면서 가정의 신앙 회복과 입시 및 사교육 문제의 해결을 바라고 있다. 성경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보면서 몇 가지 단어를 이용해서 억지스러운 주장을 펼치는 그릇된 관점

이 아니라 성경 안에 녹아 있는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하고 모든 학문을 기독교교육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시야를 넓혀준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골 1:16).

학교교육을 기독교교육의 영역으로 인식하지는 주장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아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개혁신학의 전통이다.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뱅 모두 교회 옆에 학교를 지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한 사역은 경신학당 설립(1886년)이다. 그 이후 새문안교회를 지었다(1887년). 따라서 우리는 ‘교회 옆에 학교’라는 소중한 신앙적 유산을 재발굴해서 기독교교육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

철학교수 홈스(Arthur F. Holmes)의 말대로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All Truth is God's Truth).



이강현 목사
(양지 온누리교회)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배우자 기도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답: “하나님은 두 남녀의 만남과 결혼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은 내게 가장 합당한 배우자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굳이 어디까지라고 제한을 두지 말고, 솔직하게 나의 생각과 감정을 기도해야 합니다. 배우자 기도는 상대를 위한 기도 같지만 결국 나 자신을 만지시고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만남 중에서 가장 귀한 만남은 배우자와의 만남일 것이다. 이를 위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참 복된 일이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내가 원하는 배우자의 조건 20가지 항목’ 정도로 여긴다. 예를 들면, 연봉은 얼마 이상, 외모는 현빈이나 김태희 이상, 영성은 다윗 이상 등을 기도제목 리스트에 올린다. 이러한 배우자 기도의 이면에는 내 욕망과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이기심이 자리하고 있을 수 있다. 배우자를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결혼에 대한 기도를 다시 점검해야 한

다. 성경적인 결혼관을 알면 배우자 기도의 바른 방향을 잡아 갈 수 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창 2:24).

결혼은 부모 밑에서 성장하는 동안 익숙해진 정서적, 문화적, 경제적인 것들로부터 떠나서 배우자와 연합하고, 배우자와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것이다. 결혼은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거룩’이 목적이란 하지 않던가.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관을 마음 중심에 두고 기도의 방향을 맞춘다면 결코 내 욕심을 위한 기도에서 우치지 않을 것이다. 배우자의 조건에 치중하기보다 내가 먼저 건강한 배우자로 준비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배우자 기도는 어디까지 해야 할까? 하나님은 두 남녀의 만남과 결혼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신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은 내게 가장 합당한 배우자를 만나게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굳이 어디까지라고 제한을 두지 말고, 솔직하게 나의 생각과 감정을 기도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해지면 서 점점 배우자에 대한 내 기준이 하나님의 기

준으로 바뀌어 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배우자 기도는 상대를 위한 기도 같지만 결국 나 자신을 만지시고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다. 결혼이라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자신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자는 어느새 자신이 가장 멋진 배우자가 되어 가고, 가장 복된 결혼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내 배우자인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기도 한다. 답부터 말하자면 알아볼 수도 있고,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 눈이 마주치자마자 내 배우자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잘 몰라도 괜찮다. 하나님께 계속 묻고 인도하심을 구하면 자연스럽게 상황과 마음을 움직여 배우자로 받아들일지 아닐지 결정하게 된다. 흔히 눈에 공작지가 낀다고 말하는 시기에 멈춰 서서 하나님께 내 배우자인지를 묻는 기도가 필요하다. 옆에 있어도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배우자인지 모를 수도 있고, 내 마음이 끌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다. 공동체의 멘토나 신뢰할 만한 동역자에게 조언을 구

해 객관성을 갖고分辨하는 것도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 삶이 질서를 찾고,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면 가장 확실한 증거일 수 있다. 그러나 내 배우자라고 확인해서 결혼해도 살면서 “이 사람이 맞나?” 싶을 때가 있다. 그래서 배우자 기도가 중요하다. 배우자 기도를 통해 확신을 얻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고, 선택한 결혼이라면 어려운 일이 닥쳐도 건강한 결혼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짝임을 믿고 살아간다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부가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에 대한 바른 이해와 결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혼생활을 가꾸어 가는 것이다.



박승자 권사
(두란노어머니학교 강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오늘, 주님과 살다

크리스천은 누구이며,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 예수님이 그 모델이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정체성이자 삶의 방향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훈련이 있다. 삶의 아주 작은 선택의 순간에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질문하는 것이다. 짧은 묵상 글들을 읽어가면서 매순간 선택의 순간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질문하게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 있어 추천한다. 박광석 목사의 <오늘, 주님과 살다>다.



오늘, 주님과 살다
박광석 저 | 두란노 | 12,000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 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신 6:5).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신앙인은 마치 하나님의 노예가 된 것처럼 보이겠지요. 그러나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보면 우리를 가장 가치 있게 하는 것이며 진정한 행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이미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선택에 따라 형성되는 게 분명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지 말아야 합니다. 날마다 은혜의 씨앗을 뿌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책 <오늘, 주님과 살다>(두란노)는 이와 같은 짧은 묵상 글들을 엮었다. 20년 가까이 베델교회 주보 첫 면에 ‘은혜로운 예배’라는 제목으로 실린 짧은 묵상 글 중에서 가장 울림이 큰

글들을 선별했다. 이 책의 저자 박광석 목사는 책 <오늘, 주님과 살다>를 이렇게 소개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에 답을 제시하는 책이라고 추천한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묵상하면서 영광의 나라로 가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특히 우리의 놀라운 신분 변화와 새로운 삶의 여정은 예배의 자리에서 깊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건강한 예배자로 이끌 수 있을까’하는 것을 늘 과제로 삼았습니다. 이 책이 누군가에게 신앙의 새로운 세계를 만나고,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초대장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심연으로부터 샘솟는 샘물 같은 기쁨을 누리면서

오늘, 주님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자는 예수님의 방법을 고민하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건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건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하고,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하루 하루를 살아야 한다고 권면한다. 깊은 말씀 묵상을 통해 매순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단 한 번뿐인 오늘을 누구와 함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오늘 하루,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매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질문을 던져보자.

온누리신문 · CGNTV 공동기획

‘감사일기’와 ‘가족버킷리스트’

가정예배의 아주 중요한 유익과 목적 중 하나는 가족들끼리 일상의 감사를 나누는 것이다. 가정 안에 감사가 쌓일수록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기 때문이다. 감사를 나누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감사일기’를 추천한다. 시중에 나와 있는 감사일기 관련 서적이나 일기장을 활용해도 좋다. 가족들끼리 매일 다섯 가지 감사제목을 나누고, 그 내용을

감사일기로 쓸 수도 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잠들기 전까지 겪은 사건, 상황, 대인관계 등에서 느낀 감사를 짧게 기록하면 된다. 가족 구성원 각자 감사일기를 쓸 수도 있고, 가족들이 SNS 단체채팅방을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감사일기를 써도 좋다. 가족구성원의 일상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감사일기를 쓰는 게 익숙해지면 ‘임마누엘

일기’로 발전시킬 수도 있다. 임마누엘 일기는 온누리교회 회복사역에서 추천하는 일기다. 일상에서의 감사를 하나님과 대화하듯 써 내려가는 방식이다. 토기장이에서 출판한 <임마누엘 일기>를 참고하면 좋다.

가족버킷리스트는 가족들과 함께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를 적고 실행해 옮기는 것을 말한다. 버킷리스트는 평생 한번쯤 해보고 싶

은 일,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을 적는 목록이다. 따라서 가족버킷리스트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어야 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한다. 마감시간도 정해져 있어야 한다. 외식하기, 동물원가기, 주말 피크닉, 함께 예배드리기, 아웃리치, 신약 통독하기, 성경 필사하기 등이 있다. 비교적 쉬운 난이도부터 달성해보는 것이 좋다.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가이드

제목: 이 마음을 품으라
본문: 빌립보서 2장 5-8절
찬양: 온 맘 다해
메시지

오늘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통해 성도가 어떤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비우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내 생각을 비워야 예수님을 내 안에 풍성히 모실 수 있습니다.

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예수님의 생각을 가장 가까이에서 담은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 안에도 예수님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음에서 예수님을 조금씩 쏙고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소중한 것을 다 쏙어버렸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쏙고 세상을 채우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고 결국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돌이킬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비우지 못했고 후회만할 뿐 다시 예수님을 담지 못했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8절

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홀로 산에 오르시며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8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끝까지 마음을 지키는 모든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준비된 그릇을 볼 수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

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딤후 2:20-21).

많은 그릇이 있습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되는 그릇은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입니다. 자신을 비워 깨끗하게 준비되어 예수님을 온전히 마음에 담고 예수님을 온전히 마음에 지키며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는 모든 가정되시길 축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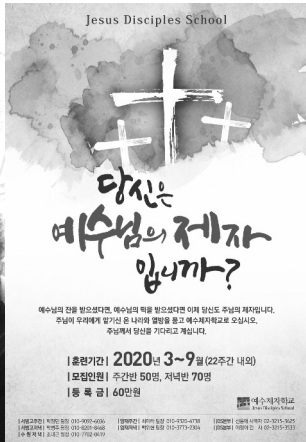
/ 문영재 목사

찬양: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늘(2월 2일) 저녁 8시 30분 CGNTV에서 방송되는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를 시청하시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YouTube 채널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를 통해 직접 가정예배 Live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예수제자학교(JDS) 훈련생 모집



주간반 50명(여성), 저녁반 70명(남녀)

예수제자학교(JDS)에서 2020년 훈련생을 모집한다. 서빙고, 양재 주간반과 저녁반, 수원 저녁반 등 총 5개반이 개설된다. 주간반은 여성들만 참가할 수 있고, 50명을 모집한다. 저녁반은 남녀 모두 참가할 수 있고, 70명을 모집한다. 주간반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까지, 저녁반 목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 토요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진행된다. 개강은 서빙고, 양재 주간반 2월 27일, 양재, 수원 저녁반 2월 29일, 서빙고 저녁반 3월 5일에 한다. 교육기간은 10월까지 총 22주 동안 이어진다.

예수제자학교 참가신청은 해당 캠퍼스에 마련된 안내데스크에서 하면 된다. 등록금은 60만원이다.

예수제자학교(JDS)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정체성과 소명을 발견하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지상명령을 수행할 제자를 만드는 훈련이다. 강의와 나눔, 해외 아웃리치, 성령사역 등이 진행된다. 문의: 02-3215-3625, 3533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NGO 더멋진세상 생명 살리기 프로젝트

우크라이나 국립아동심장병원에 순환박동장비 지원

NGO 더멋진세상이 북한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예바(생후 8개월)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 국립아동 심장병원에 순환박동장비(ECMO)를 지원했다. 예바는 심장병 수술 이후 발생한 합병증으로 집중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증세가 악화되어 노후장비로는 더 이상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우크라이나 국립아동 심장병원에서 NGO 더멋진세상에

게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했다. NGO 더멋진세상은 생명 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600만원 상당의 순환박동장비(ECMO)를 발 빠르게 지원했다.

앞으로도 NGO 더멋진세상은 해외 및 국내 환우들의 생명 살리기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수원 청년부 히즈 'Holy Fire Camp' 개최

경기 남부 15개 교회, 차세대 245명 참석

수원 온누리교회 청년부 '히즈'가 지역교회를 섬기기 위해 'Holy Fire Camp'를 개최했다. Holy Fire Camp는 인원이 적거나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자체적으로 수련회가 어려운 교회 차세대들을 위한 무료 수련회다. 이번 수련회는 지난 1월 17~18일 Acts29비전빌리지 박모세

홀에서 진행됐다. 경기 남부 15개 교회에서 차세대 245명이 참석했다. 수련회에서는 마크 최 목사(뉴저지 온누리교회), 김진하 목사(복음의 교회)가 말씀을 선포했다. 게스트는 지미션, 감상진 CCM 사역자 등이 출연했다. 찬양은 워십하우스팀이 섬겼다.

/ 김현준 기자

복음의 전함, 마지막 목적지 간다!

2월 17일~3월 16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하우텡

온누리교회 전도사역본부와 협력하고 있는 복음광고선교단체 복음의 전함(이하 복음의 전함)이 '세계 6대주 광고선교 캠페인' 그 마지막 목적지 아프리카로 떠난다. 오는 2월 17일부터 3월 16일까지 'It's okay with Jesus!'를 주제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하우텡(Gauteng)에서 사역한다. 복음의 전함이 실시하고 있는 세계 6대주 광고선교 캠페인은 2016년 12월 북아메리카를 시작으로

2017년 5월 태국, 2017년 9월 오세아니아, 2018년 3월 유럽, 2019년 10월 남아메리카를 거쳐 2020년 마지막 목적지 아프리카에서 광고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운동이다. 복음의 전함 주요사역은 복음광고 집행, 다국어 전도지 10만 부 지원, 거리전도 등이다. 문의: 02-6673-0091

후원계좌: 농협 317-0008-1203-31 (사단법인 복음의전함)

홈페이지: www.jeonham.org

마더와이즈 '회복' 수강생 모집

3월 10일~5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마더와이즈 '회복' 서빙고 양재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3월 10일부터 5월 26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 양재 도곡교육관 기쁨홀에서 진행된다. 마더와이즈 회복에서는 '당신을 택하신 주님

', '당신을 받아들이시는 주님', '당신을 위로하시는 주님'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회비 5만 원(3월 9일까지 접수하면 4만 5천 원).

문의: 서빙고 02-3215-3521

양재 02-570-7436

두란노바이블칼리지 2월 세미나

두란노바이블칼리지에서 2월 세미나 일일특강 '기도학교'와 소통특강 '동굴에서 광장으로'가 개강한다.

기도학교는 2월 14일 오전 10시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열린다. 강사는 김현미 목사(GIM 대표)이다. 기도를 배우기 원하는 성도, 기도하고 싶으나 연속성이 없는 성도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회비는 4만원. 2월 7일까지 등록하면 회비가 1만원 할인된다.

문의: 02-2078-3456

소통특강 '동굴에서 광장으로'는 2월 17일 오전 10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진행된다. 소통 준비, 말문 열기, 소통학 개론, 소통 연습, 나의 소통전략 등을 주제로 국민대 학교 이의웅 교수가 강의한다. 회비는 6만원이다. 2월 10일까지 등록하면 회비 4만 5천 원.

문의: 02-2078-3275

이주민선교학교 참가자 모집

2월 4~29일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온누리M센터에서 15기 이주민선교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주민선교학교는 이주민선교에 헌신할 봉사자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주민선교에 관심 있는 온누리교회 성도라면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다. 이

번 이주민선교학교는 2월 4일부터 29일까지 매주 화요일(마지막 주는 토요일) 오후 7시 서빙고동 신동아쇼핑센터 2층 믿음홀에서 진행된다. 회비는 2만원

문의: 010-5780-8410

알콩달콩 부부학교 참가자 모집

2월 5~8일 더쇼어호텔 제주

두란노어머니학교에서 알콩달콩 부부학교 8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2월 5일(수)부터 8일(토)까지 3박4일 동안 더쇼어호텔 제주에서 진행된다. 알콩달콩부부학교 8기에서는 건강한 떠남, 부부의 성, 대화법, 재정 관리, 자녀양육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참가신청은 전화나 두란노어머니학교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선착순 마감이다. 회비는 커플 당 66만원(항공료 별도).

문의: 02-2182-9114

홈페이지: www.mother.or.kr

새가족 등록을 축하합니다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1139054	이선아	부천 믿음	1139082	권민경	인천 미추홀	1139128	강경숙	양재	1139168	최희자	인천 동누리
1139062	황선정	대전 복누리	1139083	허숙자	인천 동누리	1139129	홍성창	서초C	1139169	유재영	남양주C
1139067	박선영	여호수아	1139084	곽여진	인천 동누리	1139130	곽선혜	노원	1139171	황은호	인천 동누리
1139068	전예슬	여호수아	1139092	김철호	하늘	1139134	임영지	중종로	1139172	박정수	송파A
1139069	김효정	여호수아	1139093	김현우	하늘	1139135	송승철	중종로	1139174	유희현	남양주B
1139070	김강협	여호수아	1139094	나은새	하늘	1139152	권혁주	대전 남누리	1139175	이재은	허브
1139071	이수연	여호수아	1139095	이상권	하늘	1139158	조경화	동대문중앙	1139176	박수지	허브
1139072	구본하	여호수아	1139096	신세빈	하늘	1139159	이윤정	고양은평	1139177	강예선	허브
1139073	김지원	여호수아	1139102	이지숙	수원 복누리	1139160	노숙원	강촌	1139178	이병숙	성북
1139076	염윤희	대전 남누리	1139117	서준영	인천 서누리	1139161	심준보	서초B	1139179	최병권	송파B
1139077	김마로	W	1139123	박형준	부천 사랑	1139164	김은영	여호수아	1139180	유지상	도곡
1139080	김지석	허브	1139124	김민주	강서	1139165	김송현	신용산	1139186	한수진	이촌
1139081	이희상	허브	1139126	이순자	수원 남누리	1139166	안동호	양재	1139189	정혜은	부천 희락

1월 세례자

■서빙고
이승훈 730222
조재현 760522

입교
차명희 850611
이예인 960229

유아
곽세연 180803
곽수철 전아람

류도진 181217
류성준 박지수

손인식 안주옥
송나은 180508

송영재 김성숙
이선우 180829
이창원 강혜연

최시안 180118
최원석 광정은

■양재
김성환 671128
김영식 570301

김찬의 630330
유종열 740124

입교
최종미 850925

유아
김하은 180131
김주호 주은진

박소민 190412
박일근 송해나
배라엘 190202
배재원 이지원

신라희 180326
신은섭 김아람

신지은 181117
신영태 김가빈

안유현 181220
안재준 김지영

유나은 190208
유장식 김혜영

이승재 181207
이강석 강지현

이은유 180101
이건웅 이미혜
이우진 180313
이동욱 김다은

김상아 930201
김주희 840926
정지완 851202

입교
김승현 930429

요셉
장해연 870524

SNS
김서정 920714
김슬기 850517

서지원 941031
이민화 880216

유아
김태윤 180618
김현종 김희진

전도폭발훈련 수료 간증



/ 이한주 성도(동작공동체)

전도는 모두에게 기쁜 소식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빛이었다.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며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에 전도현장에 함께 하기도 했지만 항상 어딘가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던 중 순 집사님의 소개로 전도폭발훈련학교에서 훈련을 받게 되었다. 처음에는 관계전도 대상자를 찾고,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그룹장님과 훈련자, 훈련생이 하나 되어 기도하면서 대상자를 찾았다. 서로 시간을 맞춰 거리와 장소, 날씨를 불문하고 대상자들을 만나러 갔다. 퇴근 이후 지친 몸이었지만 사랑의 빛을 갈을 수 있다는 마음에 발걸음은 가벼웠다.

전하는 말씀에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대상자들에게 참 고마웠고, 열심히 복음 전하는 모습에 귀 담아 듣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대상자 앞에서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느꼈다. 노방전도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는 현상이었다. 첫 번째 대상자를 정하고 다가가려는데 내 마음에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앞섰다. 그러나 “거절은 나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니 낙심 말고, 수많은 거절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다”는 목사님 말씀으로 떨쳐버렸다. 전도하면서 만난 잊지 못할 분이 계시는데 고시원에서 생활하시는 한 노인 분이다. 복음 전문을 전하고 설명하자 어둡던 얼굴에 환한 미소를 보이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던 순간이 잊혀지지 않는다. 힘들게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신 아버지의 모습이 교차되기도 했다. 결신기도를 도박포박 따라하시는 모습에 목이 메었고, 내가 드리는 기도 아멘으로 화답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전도를 게을리 했던 지난날들을 회개했다. 관계전도와 노방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성령님께서 능력을 부으시고 사용하여 주실 때 우리는 쓰임 받을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받는 자뿐 아니라 전하는 자에게도 기쁜 소식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 관계전도와 노방전도를 하면서 만났던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기를 기도한다. 그분들도 복음에 빛난 자로서 기쁜 소식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기도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두란노어머니학교 간증



/ 김혜숙 집사(부천 온누리교회)

세 가지 변화와 성장

딸이 중2 아들이 고2였을 때 우연히 일간지 한 면을 차지한 아버지학교에 관한 기사를 보게 되었다. 수많은 아버지들이 모여 좋은 남편이자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교육 받고, 배운 것을 가정에서 실천하면서 가정이 회복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이미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된지 18년이 되었지만 어떻게 아내의 역할을 하고, 자녀를 양육할지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다.

두란노어머니학교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여성으로서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솔하게 들어온 남편에 대한 순종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 나도 건강한 여성, 아내, 어머니가 되어 가정을 더 잘 세워보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

첫째, 아내의 역할은 남편이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것과 자녀는 부부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동안 내 기준에 맞추느라 남편을 조종하고 판단하고 지적했던 교만한 내 모습을 회개하고, 돕는 배필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게 되었다. 또 자녀들을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 주신 선물이

고,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 귀한 손님이라는 생각으로 바라보니 자녀들을 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더 부드러운 관계의 시작점을 만들 수 있었다.

둘째, 깨어진 자원자들의 가정과 상처 입은 아내들과 이야기 나누고, 위로하면서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한지를 재확인했다. 나와 내 가족만을 향했던 기도가 지경이 넓어지면서 다른 가정의 아픔과 상처를 품고 눈물로 기도하게 되었다.

셋째,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용납하는 폭이 확장되었다. 각기 다른 교회 문화와 개인의 성격, 환경, 성장배경, 믿음의 단계가 달라 오해나 갈등이 생길 때가 있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대신 서로 다른 점들을 이해하고 인정하려고 애쓰면서 나의 모난 성품이 많이 깎이고, 고착화된 관점들이 유연해졌다.

사람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사랑할 대상이 있을 때, 꿈이 있을 때, 좋은 관계를 맺을 때 행복하다고 한다. 두란노어머니학교는 인생의 후반전을 지나고 있는 지금의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고, 변화시키고 있는 생명공동체이자 성장터이다.

세라핌합창단 단원 간증



/ 김진석 학생(세라핌합창단)

내 꿈을 찾아준 창구

처음 세라핌합창단을 시작할 때 4년이나 활동거리라고는 생각 못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내 의지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세라핌합창단 태국 선교가 더욱 은혜로웠다.

태국선교를 가기 전 평소보다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아버지 때문이었다. 고등학교 진학문제로 공부할 양이 많아 아버지께서 선교 가는 것을 반대하실 줄 알았는데 허락을 해주셨다. 내가 드렸던 기도에도 대한 주님의 응답이었다. 내 기도에도 항상 귀 기울이고 계신 주님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지난달 열린 정기연주회에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을 초대했다. 교통도 불편하고 거리가 멀어서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친구가 다섯 명이나 왔다.

정기연주회에서 연주한 곡들이 거의 찬양이라 친구들이 흥미를 느끼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찬양이 좋았다는 피드백을 들었다. 성가사님과 반주자 선생님, 트레이너 선생님, 세라핌 단원들과 또 하나의 좋은 추억

을 만들 수 있어 너무 기쁘고 감사했다. 성가사님, 선생님들, 어머니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정기연주회를 잘 마칠 수 있었다.

나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길을 많이 헤맸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몰랐다.

많은 고민 끝에 중학교 3학년이 되었고 주님께서 작곡가라는 꿈을 주셨다. 나는 음악장르 중에서 힙합을 좋아한다.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작곡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음악 사이트 ‘사운드 클라우드’에 곡을 올리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작곡이라는 소중한 재능을 주셨다. 꿈을 찾는 과정에서 세라핌합창단의 역할이 컸다. 세라핌합창단은 내 꿈을 찾아준 창구다. 4년 동안 활동해온 세라핌합창단을 통해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재능을 발견하고, 목표를 찾았다.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기도할 것이다.

대학청년부 크리스마스 블레스



/ 송경배 형제(요셉공동체)

나의 크리스마스 선물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빛나는 집 예루살렘 새집에서 주의 얼굴 보오라.”

골목 깊숙한 여인숙 구석에서 우수에 찬 목사님의 곡조가 들린다. 성탄절 아침 등대교회 성도 한 분이 돌아가셨다. 골목 사이에서 이웃들이 하나 둘씩 고인의 마지막 여정길을 배웅하려 여인숙 근처로 모여든다. 비좁고 축축한 방 한구석 가족도 친구도 없는 외로운 죽음이라 마음이 먹먹하다.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 길 마중나와 동행하셨을 생각에 이내 마음을 추스른다.

고인은 긴 방황 중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는 목사님 권면에 오랜만에 등대교회 성탄절 전야 행사에 참석했다. 그날은 그의 마지막 날이기도 했다. 모처럼 교회 친구와 이야기꽃 피우고, 별미도 나누고, 집에 갈 때 우리가 추운 겨울이라고 준비한 패딩조끼도 하나 받아 가셨다. 그런데 그새 따뜻한 하나님의 품으로 떠난 것이다. 고된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한 영혼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진다. 한 성도님이 죽음으로 보여주신 구원의 약속과 기쁨은 주님이 예비하신 최고

의 성탄절 선물이었다.

등대교회 성도들은 일반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사회적 단절을 경험한다. 때로 쪽방촌에 입주하지 못해 길거리에 노숙해야 할 때도 있다. 매일 먹을 음식, 누울 자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도 있다. 매주 제공받는 식사인데, 교회 밥을 받아 앉아서 소리 없이 식사에 열중하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시리다. 식사를 준비하시는 사모님도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 항상 아낌없이 귀한 재료들로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 베푸신다. 그날도 떡국을 끓여 수십명의 성도들과 나눴다.

식사 후 그들은 다시 쪽방과 길거리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구원의 약속과 천국의 소망이 그들 마음에 온전히 세워진다면 어디서든 이전과 같이 단절된 삶이 아닐 것이다. 복음을 품은 성도에게 하나님은 어디서든 천국 소망이 흘러갈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힘을 주시기 때문이다. 성탄의 기쁨이 등대교회 성도님들께 영원한 축복이 되길, 그리고 그들을 통해 주위의 믿지 않는 이웃들도 구원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길 소망한다.

장로칼럼

‘행복한 가정운동’을 일으키자!

김선래 장로
(가정사역공동체)

지난 몇년간의 사회적 화두가 행복이고, 저출산 고령화다. 이 문제들은 서로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 국가 중에서 행복지수가 최하위이고, 출산율은 세계 224개국 중에서 222위로 최하위에 속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잘 사는데 왜 이럴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15년 전만 해도 저출산 문제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다. 정부가 저출산 관련한 정책을 세우지도 않았고 예산도 미미했다. 그러나 지난 13년 동안 정부가 저출산을 막으려고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총 152조 원을 지출하였다. 그 중에서 65%가 영유아 지원사업에 쓰였고, 2018년에는 30조 원을 저출산대책에만 썼지만 출산율은 계속 내려가 2019년에는 출산율이 0.98명이 됐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인구학자 David Coleman 교수는 지금의 출산율이 계속된다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나라가 한국이 될 것이라고 2006년에 UN에서 지목했다. 또한 280년 후에는 우리 인구가 남자 2만, 여자 3만으로 5만 명 정도가 남는다는 충격적인 발표도 했다. 2017년 Google에서 뽑은 최고의 미래학자 Thomas Frey는 KBS 명견만리에서 2300년이 되면 한국에서는 마지막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 예언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보아야 하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두 날개 중에서 한 날개는 정부의 좋은 정책과 경제적인 지원이다. 나머지 한쪽 날개는 영, 혼, 육에서 오는

평강과 행복의 변화이다. 가정과 사회의 행복 지수가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다. 이것 때문에 사탄이 우리나라의 교회와 가정을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가정사역자들과 기독교 지도자들이 운동을 벌였으나 한계에 부딪혔다. 그렇다고 가만있을 수 없다. 이제 때가 된 것 같다. 우리가 힘을 합쳐 먼저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 가정들이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면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수 있다. 우리나라를 살렸던 ‘새마을운동’처럼 우리는 사회에 가정을 살리는 ‘행복한 가정운동’의 바람이 일어나야 한다. 사회에 좋은 바람이 불면 요즘은 과거 새마을운동 때와 달리 빠른 속도로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하여 폭발적인 사회변화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행복지수를 올리고 저출산을 막으려면 지속적인 정부의 재정지원과 행복한 가정운동이 사회에서 일어나야 한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5만 개가 넘는 교회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아이를 낳으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차별화된 보육원을 만들고, 보모는 국비로 수만 명씩 배출하는 일에 교회들이 동참하면 교회 부흥도 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큰 몫을 하게 되지 않을까? 줄어들고 있는 기독교 인수를 올릴 수 있는 방안도 된다고 본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희망이 보이는 것 같다.

한국 교회 가정사역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온누리교회에는 가정사역본부와 가정사역공동체가 있다.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 가정사역공동체가 교회를 변화시키고,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한국의 행복지수를 올리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불가능은 없다. 온누리교회 향후 30년 계획을 세우는 데에도 커다란 획이 될 것이다.

권사칼럼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이계숙 권사
(송파B공동체)

어느덧 올해가 결혼 40주년이 되는 해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아쉬움이 참 많다. ‘지금이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라며 후회하는 일이 생각난다. 또 한편으로는 ‘그때는 그렇게 하길 잘했구나’ 하며 나 스스로 대견해 하는 일도 더러 있다.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잘한 일은 두란노어머니학교를 경험한 것이다.

2003년 본부 21기 두란노어머니학교 지원자로 시작해서 22기부터 스태프로 섬겼다. 처음 어머니학교를 시작할 때 이미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할 즈음이라 너무 늦은 것 같아 망설였다. 하지만 스태프로 섬기면 섬길수록 내가 무뎠던 엄마 노릇, 아내 노릇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 아찔했다. 지난 시간들이 부끄러워질 만큼 많은 것을 배웠다. 건강하지 않았던 내 모습이 보였다.

나는 좋은 엄마, 행복한 아내가 아니었다. 물론 17년이란 시간이 흐른 지금도 나는 변화 중이다. 아직도 아이들에게 완벽한 엄마가 못된다. 다른 가정을 세우는 일에 앞만 보며 달려가다 보니 때로는 내 딸과 아들이 “우리 가정은 누가 돌보느냐?”며 불만을 터트릴 때도 많았다. 더 가슴 아픈 것은 딸아이가 두 아이를 출산했을 때 내가 도와주지 못해 우울해했던 일이다.

남편은 내 인생의 로또다.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었다. 달라도 너무 다른 남편과 살며 안 살고 싶을 만큼 힘들었지만 어머니학교에서 서로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 이후 남편

과 내가 달라서 오히려 감사하게 되었다.

가정의 회복을 준 어머니학교는 많은 것을 발견하게 해 주었다.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좋아하는지 모르고 살았는데 우연히 찬양팀으로 섬기면서 내가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고 잘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늦은 나이였지만 53살에 다시금 교회실용음악을 전공하게 됐다. 찬양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열고 회복되어 가는 것을 보며 통로로 쓰임 받는 것이 너무 감사했다.

또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어머니학교와 교회를 섬기면서 데코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데코를 할 때면 참 행복했다. 잘 배워서 섬겨야겠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했다. 파티플래너와 꽃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게 되었다. 지금은 데코스쿨과 꽃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이 되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일들이다. 내가 데코하는 것을 좋아하고, 꽃으로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지 몰랐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40살이 된 딸이, 38세가 된 아들이 아이들을 키우며 ‘우리 엄마가 이때는 이래서 그랬구나’ 하면서 나를 많이 공감해준다. 감사한 것은 사위와 며느리를 볼 즈음 시어머니, 장모학교가 열리게 되었다. 이 학교는 또 다른 역할을 해야 하는 나를 위한 학교였다. 내 집에 들어온 사위와 며느리에게 어찌해야 하는지 많이 배웠다.

요즘 나는 93세 되신 시아버님을 모시고 있다. 어머니학교에서 배운 대로 말씀을 따라 어른을 공경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 생각하고 마음 다해 모시기를 원한다. 내 자신과 나의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사랑하며, 공동체를 섬기도록 해준 어머니학교에 참 감사하다.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주님, 제가 아내입니다!”

신앙에세이

정한효 목사
(Pole2 대학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위기를 만나지 않기를 원한다. 하지만 우리의 바람과 달리 위기는 우리 삶에 가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흔들만한 위기들은 생각보다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위기의 씨앗 중 하나가 바로 ‘말’이다. 사소한 말 한 마디가 관계를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 자신을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게 만들기 때문이다. 한 철학자에 따르면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한다. 인간의 언어가 한 개인의 사유의 체계를 형성하는 근간이 되고, 더 나아가 인간의 문명구조를 이루는 뼈대가 된

다는 것이다. 그만큼 언어가 가진 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깊은 영향력이 있다.

언어가 지닌 힘은 성경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방법이 ‘언어(말씀)’였다. 하나님의 언어는 세상을 창조할 만큼 무한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의 언어는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고,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구체적인 표시였다.

그렇다면 인간의 언어는 어떠한가? 사람의 언어 때문에 한 개인이나 공동체가 살아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자들 가운데 10명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적인 분열과 혼란에 빠졌다. 반면 모세라는 한 사람의 증언으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기도 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언어의 강력한 영향력을 경험한 곳이었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불필

요한 말이나 부정적인 말이 한 그리스도인, 더 나아가 교회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언어의 연약함을 경계하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여러분이 내 기대에 못 미치거나 내가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칠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파당과 중상모략과 수군거림과 교만과 무질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고후 12:20).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인간의 언어에서 하나님의 언어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인간의 언어는 연약한 인간의 본성에 뿌리내려 철저하게 인간의 죄성을 공급받아 자라난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어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고 있다.

인간의 언어에서 하나님의 언어로 변화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우리의 언어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의

언어가 얼마나 온유한가? 나의 언어가 얼마나 겸손한가? 나의 언어에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가?

언어만큼 철저할수록 모자랄 것이 없는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의 말을 “여러분의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다. 의식하지 못한 채 쉽게 저지를 수 있지만, 그에 비해 영적인 충격과 공격이 큰 것이 언어의 죄다. 그래서 언어를 철저히 인식하면 할수록 힘을 지니게 되고, 철저히 경계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것이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를 닮아가도록 실천해 보자. 우리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만나고 교제하는 모든 이들에게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임하게 될 것이다.

인간의 언어에서 하나님의 언어로



주일강단

〈3면에 이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십시오

전쟁에서 이기고,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우상숭배를 근절하고, 그가 추진한 모든 일이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성공이 계속될수록 자기도 모르는 사이 조금씩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입니다. 신앙적인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기도응답을 받게 되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감격해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응답을 받으면 내가 응답받을 만한 합당한 존재라고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많이 체험한 이후 도리어 불신과 불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조지 물러는 고아를 양육하면서 수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고아들을 양육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의 기도응답들을 기록한 일기를 보면 1837년 5월 28일 그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주님께 부족한 1,000파운드를 달라고 간구하였다. 내 생각으로 그것은 이미 응답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 확신이 들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기도를 여러 번 하였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20년 후 그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봤습니다. 1857년 11월 12일 그의 일기입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간구하고 기도드리면서 바라던 날이 드디어 찾아왔고 내 마음속으로 바라던 바가 허락되었다. 나는 오늘 400명의 새로운 고아들을 수용할 새 고아원을 개원했다. 7년간 매일 매일 기도를 드린 후에 얻은 이 건물이 내게는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이 축복은 결코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온 결과이다.”

20년 후에도 그의 믿음은 동일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

워야 합니다. 그는 20년 동안 수없이 많은 기도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를 계속 드리고 있었습니다. 아사 왕의 믿음이 왜 추락했습니까? 평안이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평안 속에서 우리는 마취됩니다. 믿음은 영적인 신경입니다. 전심을 다하지 않는 믿음은 신경이 점점 둔해지고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향하는 '유일한 길'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와 아니라 아람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7절).

아사 왕의 행동은 백성들이 보기에는 지혜로운 행동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불신앙의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보면 아사 왕이 회개의 기회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지적도 받아들이지 않고 욕에 가두고, 크게 분노하고,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분노하고, 백성들을 학대한 것입니다. 개혁을 일으킨 최초의 왕으로 출발했지만, 최초의 폭군이자 백성을 학대하는 왕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또한 그는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아사가 다스린 지 39년에 그는 발에 병이 났습니다. 병이 아주 심했는데 아사 왕은 여호와를 찾지 않고 의사들만 찾았습니다.”(12절).

여기서 ‘의사들’은 의료인들이 아니라 점성술가나 무당

같은 사람들입니다. 당시에는 오늘날 의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왜 질병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무당들만 찾았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온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끌었던 지도자가 기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으로 추락해버렸습니다. 비참한 아사 왕의 결말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6장 4~5절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향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사 왕이 추락했던 문제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요, 불안이 아니라 평안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내 힘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성공 앞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 비참한 최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만을 향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 추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와 의는 세상을 두루 볼 수 있어서 그 마음이 온전히 그분께 향하는 사람들을 힘 있게 하십니다”(9절)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바로 그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누리교회가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이 바로 그 삶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공과 평안을 반드시 주십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겸손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는 한 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과 예방

1.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란 어떤 것인가?

코로나바이러스(Corona Virus)라는 이름은 원래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마치 왕관(라틴어로 corona)과 유사한 모양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일반적인 코로나바이러스는 사람에게 감기 등을 일으키는 병원성과 사망률이 낮은 바이러스이다. 그러나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SARS(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나 MERS(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처럼 사람들에게 높은 전파력과 잠복기 감염가능성, 높은 사망률과 치료백신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 예방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바이러스는 H(핵산), N(단백)으로 구성되어 있고, 염기서열상 H(14개), N(9개)이 144개(H14개*N9=144)가 교차변이하면서 숙주를 감염시킨다. 이번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나 SARS, MERS 등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동물 숙주에서 사람 숙주로 옮겨져서 변이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우한에서 발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유전자 분석 결과 박쥐가 원인으로 추정되며, 중국 우한에서 박쥐, 쥐, 뱀, 사향고양이 등을 판매하는 수산물 시장을 다녀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감

염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 환자의 증상

바이러스가 인체에 감염되면 먼저 증상을 일으키기 전까지 증식과정 기간을 잠복기라고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잠복기는 1~14일 정도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주요 증상은 발열(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폐렴, 인후통, 근육통, 피로감, 가래, 두통, 각혈, 설사 등이다.

3. 지구촌에서 왜 연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는가?

지난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진자가 만 명으로 늘었고, 이백여 명 정도가 사망(1월 31일 기준)했으며, 환자가 발생한 지역도 전 세계적으로 넓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동물 숙주에서 사람에게 옮기고, 또 사람을 숙주로 하여 가족들에게도 옮기는 등 사람과 사람으로 옮기게 된다. 여러 동물을 거쳐 인체로 전염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빠르게 증식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잠복기 감염 가능

성과 치사율이 높고, 아직 효과적인 약물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참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력은 SARS, MERS의 중간 정도이며, 사람의 코나 입에서 나오는 비말(가래, 침 등 호흡기 분비물)에 의해 공기 전염이 가능하고, 손에 묻었던 비말이 눈 점막을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도 있다. 치료백신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그 위험이 크다고 생각된다.

4.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개인 위생관리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SARS, MERS를 경험하면서 방역체계와 음압격리병상을 갖추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바이러스 잠복기간 2주가 지나고 큰 유행이 없어진다면 걱정을 안 해도 좋을 것 같다. 정부와 보건관계기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자나 확진자들을 대상으로 격리수용 등을 잘 관리하고 있으므로 성도님들은 정부 보건기관에 잘 협조하는 것도 중요하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에게 11가지의 개인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알려드린다.

① 가급적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는 수시로 교체해야 한다.

② 손은 흐르는 물에 비누를 이용해서 최소

20초간 씻거나 손 소독약으로 손을 닦는다.

③ 악수를 피하거나 팔꿈치 등으로 하고, 호흡기 증상을 일으키는 자와 접촉을 하지 않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귀를 만지지 않는다.

④ 컵, 식기 등 감염매체가 되는 용기는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고, 음식물을 손으로 먹지 않으며, 육류와 계란은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한다.

⑤ 기침할 때는 소매나 팔꿈치로 입을 가리거나 마스크나 휴지로 코와 입을 가리고 하고, 휴지는 비닐 팩에 싸서 폐기한다.

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유행하는 동안에는 술을 줄이거나 과도한 운동과 피로를 피해야 한다.

⑦ 건조한 환경에서는 바이러스가 증식을 잘하기 때문에 가습적 물을 많이 마신다.

⑧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지 않고, 해외여행도 자제한다.

⑨ 면역력이 약한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당뇨, 비만환자, 유아 등의 취약계층은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

⑩ 야생동물이나 가금류를 피해야 한다.

⑪ 중국 우한시나 후베이성, 중국에 다녀왔고, 발열, 기침, 호흡기 증상 등이 있으면 즉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나 전국에 소재한 보건소에 신고한다. / 안전관리분과위원회

Acts 29

게시판

2020년 2월 2일(주일) | 제1280호

14 온누리신문			
서빙고 O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영어예배 오후 4시 경찬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최용준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임선양 팀장(010-9782-7733)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성철 집사(010-3660-7135)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센터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8호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타갈로그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4: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향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2F Library / 다문화 예꿈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크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일 13:00 Peace 305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예배 주일 11:00/봉사자예배 9:30/네팔어예배 10:30 제2센터/차세대 11:0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펄택 Love Hall 남양주M센터(031-575-3303) 열방예배(한국어) 주일 11:30 301호 / ANEWS예배(영어) 주일 16:00 301호 / 한디아예배 토요일 19:00 301호 /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304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집사(010-2539-5665) 나지원 팀장(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모임(살롬이스라엘) 일시: 매주 토 오전 8시~10시 장소: 서빙고 시몬홀 문의: 010-8550-7930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홍숙희 집사(010-3003-5910)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서울은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안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명지 간사(010-5017-3146) 아프가니스탄 중보 기도모임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 12:30 장소: 선교관 202호 문의: 이진숙 집사 010-3212-2664 일.하.세. GUM예배 시간: 매 3째주 수요일 오전 8:30 장소: 서빙고 캠퍼스 선교관 101호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오전 10:30 신관 4층 누리홀	
		탈북민사역 회계, 서기, 실행위원 모집 사역: 한나원 예배 섬김, 수요한 탈북민들의 정착 지원 및 전도 문의: 임정현 팀장(010-6475-0550) 2020년 하반기(8월~12월) 온누리교회 결혼예배 예약안내 일시: 3월 11일 수요일 오후 7시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지하 1층 한동홀 준비사항: 예약금 50만원 및 교인확인증명서, 예비 신랑, 신부 중 타 교회의 교인인 경우 소속 교회 '교인확인증명서' 지참 문의: 서빙고(최연희 02-3215-3179) 양재(배현서 02-570-7505) 온누리남성성교함창단 단원모집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지하 1층 한동홀 문의: 정상구 총무(010-4731-6514)	
		서빙고 샤이닝키즈 모집 모집: 예꿈(6~7세 어린이와 부모), 꿈향(초등학교 1~6학년 어린이와 부모) 접수: 2월 15일까지 기간: 1학기(3월 7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0~12시), 2학기(9월 5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10~12시) 문의:예꿈(010-2422-7930) 꿈향(010-9105-4149)	
		양재 O2.573.9686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김호섭 팀장(010-4711-1183)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재폴실) Jesus Rock 5세~초등1(총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초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총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은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향: 도곡1관 총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청년부) 갈렐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9:00(발달장애인 4세~고등부), 11:00(발달장애인 대학부, 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Cristian Neira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은유홀 문의: 010-4924-2703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문의: 서보희 총무(010-7235-0354) *환우중보 섬김, 전도(사랑홀 환우 요청함) 양재 살롬기도회 대상: 나라와 하나 됨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 매주 월 오후 7시 30분 양재 JDS홀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 10~12시 반 경찬홀 문의: 김은지(010-3285-1726) 인도중보기도모임 일시: 매월 두 번째 월 오후 7시 30분 장소: 양재 온누리교회 총성홀 문의: 010-2735-3807 염빠랑 바이블코딩 모집: 초등학생 자녀 한명과 부모 중 한명 일정: 2월 15일~4월 18일 매주 토 9:30~12:00 접수: 강동(1월 12일~19일까지), (서빙고, 양재 2월 2일~9일까지) 신청: salvador153@onnuri.org(아이와 보호자 이름, 학년, 전화번호, 캠퍼스, 공동체 필수가입) 문의: 강동 온누리교회(02-475-9686)	
부천 O32.322.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7:00/2부 오전 9:00/3부 오전 11:30/4부 오후 2:00/5부 오후 4:00(대청예배)/6부 오후 7:00(부흥예배) 새벽기도 월~토 오전 5:20 분당 차세대 예배 영아부~오전 9:00, 11:30 / 유치부~오전 9:00, 11:30, 14:00 유년부~오전 9:00, 11:30 / 초등1부~오전 9:00 초등2부~오전 11:30 / 유초등부~오후 2:00 중등부~오전 9:00, 11:30 / 고등부~오전 9:00,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오후 7:30 한사랑예배(탈북민) 매주 오후 2:00 3층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매주 오전 11:30 3층 꿈아이홀 어린이영어예배(JEM) 오전 9:00 기쁨홀 중국어예배 매주 오후 2:00 두란노홀		수원 O31.895.6500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 4부 오후 2:00 / 5부 오후 7:00 대학청년(주일) 대학부 오후 2시(경찬홀) / 청년부 오후 3시(민음홀)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온누리워십 매주 수 오후 7:30 차세대 주일예배 영아부 오전 9:00, 11:30 드림홀 유아부 오전 9:00, 11:30 조이홀 유치부 오전 9:00, 11:30 소망홀 유년부 오전 9:00(초1~3), 11:30(초1~2) 사랑홀 초등부 오전 9:00(초4~6), 11:30(초3~4) 경찬홀 소년부 오전 11:30(초5~6) 민음홀 초등부 오전 9시 비전홀 / 고등부 오전 9시 민음홀 차세대 영어예배 오전 11:30 비전홀	
대전 O42.825.3642 주일예배 1부 오전 7:1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젊은이예배 오후 14:30 분당, 5부 대학부예배 오후 14:30 누리홀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분당 토요새벽기도회▶ 매주 토 오전 6:0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00 분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분당 차세대주일예배 예꿈(36개월~7세) 오전 9:00 꿈향(초1~초6) 오전 9:00 영아부 오전 11:30 유치부 오전 11:30 유년부 오전 11:30 소년부 오전 11:30 초등부 오전 11:30 중등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9:00		남양주 O31.56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 2부 오전 11:30 분당 / 3부(청년) 오후 2:00 분당 / 4부(저녁) 오후 7:00 분당 / 다문화 토요일 12:00 은유홀 / 북한민 주일 11:00 은유홀 외국어예배 한디아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1호 /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4호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 3층 분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분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오전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오전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오전 9:00 2층 꿈향홀 / 초등부 오전 11:30 2층 꿈향홀 / 중등부 주일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주일 오전 9:00 기쁨홀	
평택 O31.651.9680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2부 오전 11:30 분당 3부 오후 2:00 분당(대학청년)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수요일 오후 1:30 3층 파워웨이브실 수요오전여성예배 수요일 오전10:30 분당 수요여성예배 수 오후 7:30 분당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아이 오전 11:30 예꿈실 꿈이 자라는 땅 오전 9:00, 11:30 꿈향실 파워웨이브 오전 11:30 파워웨이브실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20 분당 외국어예배 몽골어 예배 11:30 평택M센터 Love Hall 인도네시아어예배 11:00 인도네시아 헬터		인천 O32.437.9686 성인/차세대/사랑부예배 2/2.9.16.23: 컨벤시아(송도동 6-1) 파워웨이브(중고등부) 예배/국제예배/사랑부 예배 제너섬 7층(송도동 179-1), 대학청년부 제너섬 7층(송도동 179-1) 주중예배 수요여성/수요저녁/새벽예배: 제너섬 7층(송도동 179-1) 주일예배 성인예배 9:00/ 11:20/ 13:30 차세대예배 영아/유치/유년/초등/사랑부 11:20, 꿈향1부 9:00, 파워웨이브1부 9:00, 파워웨이브2부 11:20, 해본리키즈 오후 13:4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2시, 몽골어배 오후 2시	
강동 O2.47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 2부 오전 11:30 분당 3부(프라미스청년) 오후 2:00 분당 프라미스U대학부 오후 2:00 사랑홀 차세대예배(주일) 예수님의꿈아이(영아부) 오전 11:30 기쁨홀 예수님의꿈아이(유치부) 오전 11:30 두란노홀 꿈이 자라는 땅(유년부) 오전 11:30 드림홀 꿈이 자라는 땅(초등부) 오전 11:30 사랑홀 파워웨이브 오전 9:00 사랑홀 사랑부 오전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20 분당 수요오전예배 오전 10:30 분당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분당		양지 O31.331.8171 주일 성인예배 1부 예배 / 9:00 / 2층 김사무엘홀(분당) 2부 예배 / 11:30 / 2층 김사무엘홀(분당) 3부 두드림예배 / 14:30 / 지하1층 박모세홀(대청) 주일 차세대예배 드림씨드(영어) / 11:30 / 2층 드림씨드홀(분당 영상 중계예배) 예수님의 꿈아이(유아) / 11:30 / 지하1층 무어홀 예수님의 꿈아이(유치) / 11:30 / 지하1층 위더슨홀 꿈이 자라는 땅(유년) / 11:30 / 2층 아펜젤러홀 꿈이 자라는 땅(초등) / 11:30 / 2층 스코랜턴홀 파워웨이브(중·고등) / 11:30 / 지하1층 박모세홀 주중예배 새벽예배(월~토) / 5:20 / 1층 시안홀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읽기



언제 시작해도 좋은 성경읽기,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읽기>가 도와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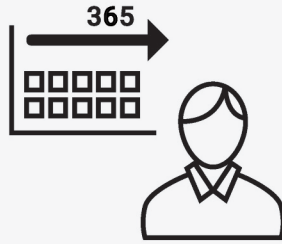
성경통독을 위한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읽기> 활용 가이드



#하루20분

성경 읽을 시간이 없는 분

언제나, 어디서나 하루 20분,
영상을 시청하는 것만으로
성경통독이 가능합니다.



#공동체

꾸준히 성경읽기가 어려운 분

가정, 순모임에서 함께 시청
하고 나누면 꾸준히 놓치지
않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읽기

성경 내용이 어려운 분

전문가의 친절한 배경 설명과
생생한 삽화로 성경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읽기> 시청 안내



step1

유튜브에서 "CGNTV" 또는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읽기" 검색 후 구독



step2

매일 아침 7시 업로드 되는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읽기> 시청